

## 민주연구원, ‘대한민국 대전환’ 연속 토론회 제5차 개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 이재영 원장,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코리아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며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
-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306호)에서 ‘평화가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대전환 중 하나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구체화하고 실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연구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코리아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수십년 간 우리가 분단과 긴장, 전쟁의 위협 속에서 경험했듯이 한반도 평화는 결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만들어가야 할 과제”라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과정으로서의 비핵화' 개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대외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 정세에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냉전적 갈등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한중, 한러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긴장 악화 방지에 주력하면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 등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장철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한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2026년 봄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 검토와 9.19 군사합의 既이행 사항의 선제적 복원 추진을 제시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남북 경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Efficiency)·연계(Network)·개발(Development) 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 정상외교가 성사될 수 있도록, 고도화된 북한의 핵능력과 미국의 안보이익을 고려한 현실적인 북핵 통제방안 즉 동결-축소-폐기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대북제재 완화 등 동시적·병행적 조치를 구체화하여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옥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민간단체와 지자체 역할 강화를 통한 '민관 협업 거버넌스' 구축 및 보건·재난안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중심 경협'을 우선 추진하고, '김대중 평화사상'을 계승·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2.0'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종합하여 외교안보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끝]

연속토론회 5

# 대한민국 대전환

##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2월 5일(목) 14시 /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306호)

**축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사말**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조정식 국회의원(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좌장** 김영배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발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토론**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김은옥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